

2023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5.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3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23. 5. 18.(목), 14:30~16:30
- ◆ 장 소: HJBC 세미나룸A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일반안건 10건 15작품 (조각 13, 회화 1, 기타 1)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재결정 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사전검토 시에 10건 15작품이었으나, 1개의 작품에 대해 심의취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 작품을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 BABY 3.0

<긍정적 의견>

- 작품 보완내용이 설득력 있음
- 대상지의 의미를 현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재탄생이란 예술적 주제가 의미 있음
- 작품의 독특한 조형성이 설치공간에 상징성을 부여할 것이라 판단됨
- 작가의 특성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디테일한 형태와 상징적인 느낌이 돋보임
- 설치 현장이 주거와 문화생활 공간으로의 재탄생한다는 의미에 걸맞게 베이비라는 작품을 접목시킴으로 매우 상징적임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결성이 있는 작품으로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
- 작가의 정체성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상징성을 보여줌
-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인
- 해외 중요작가를 소장하는 개념으로 건물의 가치와 유무형의 가치와 랜드마크의 중요 포인트가 있으며, 재료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변경되어 좀 더 개연성이 있음
- 작가의 작품세계와 주제 의식이 작품 전반에 잘 드러남
- 이전의 차가운 실버계열보다는 변경된 골드계열의 색과 둥근 좌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적합해 보임
- 작품 전달 메시지의 명확성
-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설명이 잘 되었음
-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상징성있는 공간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참신함
- 진지한 주제와 과감한 표현
- 골드계열의 컬러 교체
- 이미지가 너무 직접적이라, 예술적 상상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작품임

<부정적 의견>

- 다소 높은 제작 단가
- 지난 심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미 정해 놓은 작품으로 적당히 형식적인 변화만 취함
- 지나치게 과한 작품 금액 책정(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지나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작품이지만,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콘셉트에 상응하는 상관관계가 모호하다.
- 아티스트 비용이 작가 명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작하여 들어오는 것이 중국일 가능성이 있다면 제작 비용(재료비와 인건비 기초 타설 비용, 운송 등) 과다하게 책정되어 보임
- 작가와 기획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가치 더 나은 진화된 인류와 우리가 지향하는 3.0버전은 조각을 확대 재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세상?' 을 창조하는 일과 무슨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음
- 지난 심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재심 내용이 지난 심의의 지적사항에 대한

- 보완이나 수용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됨(1. 알루미늄 주물의 부식 우려, 영구성과 보존 취약함 2. 건축물의 이용목적과 연결성이 매우 부족한 작품인 듯. 외부공간과의 연결성, 조화성이 다소 부족하고 형태미가 주변과도 어울리지 않음 3. 규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작품가 책정 4. 인체를 활용하는 작가의 기존작업과 연관성은 있으나 작품이 설명적이라 예술적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음. 사람의 골반뼈에 올려진 아기 형상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음)
- 작품 금액이나 작가 선택에서 볼 때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취지(예술가의 창작기회 확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결 사유들이 보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하여 공공미술로서는 비효율적이며 미술작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남
- 작품의 구성미, 공개공지의 경관적 측면 등 외부 공간 도입에 다소 부적절함
- 작가의 작품성을 표방한 공공환경에서의 작위적 구성과 작품 가액을 고려, 본 작품이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필연적 개연성이 보이지 않음
- 아기 형상의 제작 방법, 과정 미표기
- 도심의 공공미술로는 과격한 표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부결 사유에 대한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이 아닌, 반박 자료만을 제시함
- 해외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수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심의에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

2.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 의견>

- 작품 설치 환경과 작품의 주제, 전달 방식이 어우러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됨
- 상업공간을 잘 해석하여 상징성을 보여줌
- 작품의 의도와 잘 맞는 설치 위치
- 공간에 어울리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적절함
- 장소의 콘셉트에 맞는 테마가 있는 미디어 작품인 듯하여 신선함
- 건물의 이용객이 작품과 상호반응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로 구현하여 감상과

체험적 요소를 더해 공공미술로서 흥미로움

- 매체의 새로움이 긍정적이며,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변화되는 영상은 주변 공간에 역동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됨
- 주제에 맞게 이용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의 상호반응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용객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여짐
- 건물의 이용객이 작품과 상호반응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로 구현, 체험적 요소로 확장하는 것은 긍정적임
- 도선에 따라 변화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변화성
- 젊은층이 주거하는 공동 주거공간에 새로운 시도는 좋아 보임
- 움직임이 많은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임

<부정적 의견>

- 작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회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으며, 작품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영상디자이너처럼 보여짐
- 작품성 결여
- 미적 교감이 어려움
- 작품의 형식이 너무 단조로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의문
-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 인트로 부분의 벽과 벽돌 다음에 단순상업적 이미지와 인터랙티브로 기존에 같은 형식의 유사 작품 많으며 프로그램의 일반적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장소/공간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시설의 정체성과의 연관성이 부족
- 건물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예산 대비 작품과 콘텐츠 비용(작가비용) 과다한 책정 및 제작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프로그램의 스토리가 구성적으로 표현(압축된 느낌)되어 스토리 전달이 다소 부족함
- 빛과 색채로 구성된 회/노/애/락의 내러티브와 건물 이용객의 움직임과 감정을 포착하는 인공지능적 관계가 미흡해 보임
- 이용객의 움직임과 감정이 새로운 증강현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임

- 미디어 구성의 회로애락의 추상적 콘텐츠 외 시기별 등 고려한 다양한 요소 연출 필요
- 관객과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며 계속해서 인물 부분은 다른 영상을 만들어내지만, 배경의 지나치게 화사한 영상의 반복이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음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도입부에 벽돌이 깨지는 이미지가 진부함
- LED 패널 손상시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인터랙티브 기기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기타 의견>

- 최소 몇 미터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지 설명이 부족

3. Abstract Time

<긍정적 의견>

- 단조로운 듯하나 조명 등의 요소 추가를 통해 특유의 조형미를 잘 살림
- 곡선적 구성을 통한 울동감이 자연 친화적 감성을 주는 작품임
- 단조로운 아파트 앞 풍경에 경쾌한 조형이 적절한 긴장감을 유발함
-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의 콘셉트와 방향이 같은 조형물의 제작으로 공간과의 조화가 어우러져 공간 이용의 성격과의 매칭이 자연스러움
- 단순하지만 조형성이 강조된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 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해야 함
- 관객의 가시 범위와 감상 각도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설치하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
- 작가의 기존 작품에서 예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여 보완함
- 공간을 흐르는 다양한 곡선의 조형 요소가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
- 이전의 작품에 비해 좀 더 움직임을 강조한 유연한 선의 구성은 리드미컬하게 보이며 공간과 잘 어우러져 보임
- 환경 속에서 울동적이고 간결한 조형미가 긍정적임
- 야간조명을 작품에 적용한 부분이 낮과 밤시간에 따라 작품이 달리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좋음
- 기존 부결된 작품에 비해서 볼륨감이 좀 더 커짐

<부정적 의견>

- 설치공간과의 연계성 미흡하고, 혼한 조형 방식으로 공간을 연출함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다소 많이 보이는 조형 유형으로 독창성이 떨어짐
- 유사한 형식의 공공 조형물이 많이 있어서 기시감이 높음
-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유사한 유형이 많이 보임
- LED조명의 유지관리 우려(선적으로 연결된 조명(폴리카보네이트)으로 일부 고장시 전체 조명 교체 가능 등)
- 다소 많이 보여진 기시감이 강한 형식의 조형
- 여타의 공공미술 작품과 비슷한 스타일
- 선적 구성이 상투적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건축물 미술품에서 익숙한 패턴의 조형성, 아쉬운 독창성. 개방된 공간으로 관람자가 타고 올라 안전성 확보 계획 필요
- 기부결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계획이 부족함

4. 사랑의 서포터즈

<긍정적 의견>

-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임
- 공간과의 조화가 잘 어울림
-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설치적 특성을 잘 이용하여 공간에 적합해 보임
- 대로변 위치적 장점
- 지하 환풍구와 연계된 작품설치 가능

<부정적 의견>

- 남녀의 신체 구체적 부위 처리 방법 검토
- 어르신들이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서베이 필요
- 형태감이 직관적이며, 해석상 다른 이유들이 읽힐 수 있음
- 명판의 위치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환풍구라는 공간 위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트를 넣어 자칫 혐오스러워 보이기도 하며 작품성이 결여된 작품
- 작가 고유의 기존 작품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작품 독창성 결여
- 장소와 공간 예술적 의미가 결여됨
- 작품과 글 내용이 매칭이 안됨
- 색이나 형태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 요망
- 구체적인 인체의 형상과 내부 하트의 단순한 조형미가 어색함
- 작품의 내용은 좋으나 조형물이 배치될 위치가 협소하고 가시적 활용성이 떨어지는 위치에다, 조형물조차도 크기가 작은 편으로 주목도 및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의 기본적인 역할 활용이 다소 부족해 보임
- 기존의 여러 조각의 방식과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진부해 보임
- 여전히 공간과 장소성과는 좀 멀어 보임
- 구조물을 이루는 구조형식에서, 근거리에서 기단과 관람자와의 가시거리 확보 고려해야함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차갑고 무거운 인상, 새로운 건물과 미래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에 및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작품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음
- 하단부의 크기와 형태가 상부 작품과 부조화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관성이 미흡하고, 조형미와 독창성을 찾을 수 없음
- DA 상부에 조각 설치는 인지성, 경관적 측면상 부적절함
- 외부 조경공간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경 검토 필요
- 인체-형상의 전달이 다소 직접적이고 기념비적 요소가 있어, 도심 환경 속에서 경직되어 보임
- 오브제 주제의 핵심인 ‘하트’ 를 인지하는데 어려움
- 주/야간 ‘하트’ 인지(표출) 방법, 아이디어 필요(조명 추가 등)
- 작품의 좌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높아 가까이서 작품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 가격 과다
- 인물의 형상과 색채가 다소 진부함
- 작품 제작에 대한 재료(환봉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한 제시뿐 환봉의 규격 및 제작

- 방법에 대한 정보 모호, 매립조명으로 작가가 원하는 야간 연출 가능 여부 의문
- 작품의 규모에 비해 기단이 너무 높아 가시성이 떨어짐

<기타 의견>

- 환풍구와 작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확인서가 아닌 구조 계산서 발급 바람
- 작품 하단의 육면체 구조물이 건축물의 배기를 위한 구조물인지 작품의 일부인지 확인이 필요함
- 배기 시설물의 제작비를 작가작품에서 부담할 경우 작품의 질 저하 우려 (환풍구와 작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PUBLIK PEOPLE

<긍정적 의견>

- 형태 왜곡에 대한 표현이 흥미를 유발하며, 공간에 재치를 불어넣어 주는 작품
- 작가 기존 작품들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
- 가액이 적절해 보임
- 장소와의 연결성이 긍정적임
-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작품으로 공공장소에 무난한 작품임
- 유쾌하고 가벼운 작품세계
- 공간 이용인들에게 생활 속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작품임
- 단순하지만 재미와 조형성이 강조된 새로운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보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질 것 같음
- 작가 특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구성, 배치, 색감 등이 설치될 공간에 위트있게 잘 어울림
- 조각 공원 같은 분위기와 작품의 매칭
- 작품의 스토리텔링 가능
-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공개공지 공간을 잘 기획하여 설치하려는 시도가 참신함
- 작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으며 테마별로 잘 구성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도가 좋음
-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공개공지 공간을 잘 기획하여 설치하려는 시도가 참신함

- 작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으며 테마별로 잘 구성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도가 좋음
- 작가의 작품과 연계성 있고, 공공미술로서 감상자들에게 친숙히 다가가는 작품
-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로 공간에서의 신선한 경험을 제공

<부정적 의견>

- 매우 높은 제작 단가
- 불안해 보이는 형태감, 가격 과다
- 더불어 산만한 배치로 안정감이 떨어짐
- 관객의 가시 범위와 감상 각도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설치하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
- 이미지가 대중적인 조형물의 특징을 고려 접근성과 유미성과는 반대로 모서리 부분 판재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함
- 조각의 단조 조형의 디테일, 사이즈와 크기 미기입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에 및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재료비, 인건비 과다 책정
-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호기심을 주는 작품이긴 하나 작품에 두께감이 없어 외부장소에는 적합하지 않음
- 외국작가의 과도하게 책정된 작품비용이 적절해 보이지 않음
- B위치에 도입한 작품 위치는 마운딩 주변에 배치되어 평지로 조정하여 검토 요함
- CD위치에 도입한 조각의 꺾인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본 작품은 도심 속 환경(벽면, 옥상, 거리 등)에서는 적절해 보이나, 본 환경에서는 형태의 단면에서 느껴지는 서사의 직접성이 공간을 모호하게 구성함
- 지속적인 먼지가 쌓이고 비,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등, 잔디에서 흙이 튀었을 때 먼지-얼룩이 생기는 구조임
- 스테인리스 플레이트 두께에 따른 내구성 및 구조적(풍동 등) 우려
- 작품공정과 재료 사용에 비해 가격 과다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개방된 공간을 살리기엔 전체적인 작품의 볼륨감이 낮고 극히 평면적 조형성으로 관객 시점에 한계가 있으며 공간을 폭넓게 활용한 것은 좋으나 각 형태들이 빈약해 보임
- 풍속과 충격에 의한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 필요

- 매립형 조명으로 작가가 원하는 야간 연출 가능 여부 의문
- 인물과 함께 표현된 예시 디자인에서 조형물이 실제보다 과하게 크게 표현됨
- 작품 규모에 비해 작품 가격이 과다함. 인물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기타 의견>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 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 안전을 우선해야 함
- 작품의 두께 표기 없음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규격 누락

6. 기다림(Waiting)

<긍정적 의견>

- 공간에 적절한 주제로 시선을 모으면서도, 압박감이나 텅이 없이 편안하게 공간과 어우러지는 작품
- 가격에 비해 작품이 크고, 이전 작품보다 많이 개선되어 보임
- 주제와 내용이 잘 전달됨
- 적절한 제작 단가
- 공간과 조화로움이 잘 표현됨
- 레드계열의 그라데이션 효과 구성
- 가격에 비해 큰 작품
- 작품 가격이 적절한 편임

<부정적 의견>

- 색 조합이 설치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음
- 공공미술 작품으로 흔히 보이는 작품으로 독창성 결여됨
- 작가 작품과 일관성 부족
- 작가의 의도가 너무 부족해 보임
- 기존의 작품과 상관관계가 부족하며, 공간에 배치하기엔 크기와 위치가 이용객의 동선에 방해가 우려됨
- 기존의 여러 조각의 방식과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진부해 보임
- 여전히 공간과 장소성과는 좀 멀어 보임

- 3D 예시 모델링을 그대로 옮김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어울리지 않음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무거운 인상, 새로운 건물과 미래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에 및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 부족
- 3D 모델링의 폴리곤 기법으로 인해 작가의 기존작업과 연관성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관성이 미흡해 보이며, 형상 표현의 독창성을 찾을 수 없음
- 작품의 위치가 필로티 구간에 애매한 위치로 도입되어 인지성, 경관성 측면이 다소 부족함
- 작품의 주제와 표현이 다소 진부해 보임
- 거리에서 인간-형상이 직접적이거나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스케일 구성이 될 때, ‘언캐니(uncanny, 기이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작가의 작품경력에서 느껴지지 않는 작위적 구성의 건축물 미술작품
- 여타의 공공미술 작품의 각진 형상들과 비슷한 스타일
- 작가의 의도(기다림)과 조형적 형태의 연결성 부족하여 공공미술의 미적가치와 독창성 부족
- 작가의 기존 작업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

<기타 의견>

- 크기나 공정에 제작비가 소요되는 작품대비 가격이 크지 않으므로, 사이즈 조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7. 늘 푸른 나무

<긍정적 의견>

- 공간에 무난해 보이고, 작품 가액도 적절함
- 작품의 조형미가 단순하면서도 정체성이 돋보임
-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조형성은 흥미로움
- 심의의견을 반영한 작품보완으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주거단지 공공작품으로 긍정적임
- 작품의 의미가 잘 전달되며, 기존의 가결된 작품들과 무난하게 조화를 이룸

- 기존의 나무 소재 작품과는 다른 구성의 독특함
- 직관적 표현물의 세련된 재해석
- 주거단지에 적합한 주제와 편안한 구성의 조형
- 주거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 도로에서도 보이는 위치에 적절한 구성으로 배치

<부정적 의견>

- 기존 나무들과 같이 놓였을 때의 컬러 대비 등을 검토 바람
- 작품의 형상이 신선함을 주지 못하며, 주변 경관과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줌
- 안정성 우려됨
- 주거공간이라는 설치장소에 부적합해 보임
- 주 색상이 주는 압도감으로 주변 공간과 다소 이질감이 생김
- 작품의 의도가 너무 부족함
- 너무 높은 제작 단가
- 식상한 형태의 다소 진부한 느낌을 줌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어울리지 않음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무거운 인상
- 새로운 건물과 미래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진부한 표현기법의 나무 형상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음
- 기시감이 높아 독창적이지 못하고, 유사한 형식으로 비슷한 형상의 작품들이 너무 많음
- 소나무의 형태와 색채가 부조화롭고 주변 공간과의 연결성, 경관성이 다소 떨어짐
- 조경공간의 나무와 인공적 구성의 나무 소재 미술작품과의 부조화
- 두방향의 작품 인지성 필요
- 야간조명설치 위치의 단순성(LED 매립등 위치와 각도 조절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 가능)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작품과의 연결성이 보이지 않으며 기존 타 작품과 유사한 제작 방법, 익숙한 패턴의 조형성
-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 필요
- 작가의 기존 작업과 비교적 다른 양상을 보이며, 초록의 조경계획 위 유사한 컬러의 작품이 어울리지 않음

8-1. Mini Me

<긍정적 의견>

- 주변 경관에 어우러지면서 유동 인구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간에 적합해 보이는 작품
- 작품가액 적절해 보임
- 미니멀한 감각이 돋보이며, 환경과 무난하게 조화됨
- 공간과의 조화
- 적절한 제작 단가
- 공간의 활용을 잘 이용한 작품으로 편안해 보이는 작품임
- 공간의 활용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자연스러운 공간과의 매칭이 돋보임
- 단순하지만 개념이 강한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디자인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의 작품성과 조형성이 탁월함
- 다양한 대리석의 색감과 패턴, 질감을 조합하여 시각적인 재미와 촉각적인 심상을 전달하며 출입구 유리문에 반사되는 효과로 풍부한 시각적 효과 연출이 이상적임
- 작가의 개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주제와 형식이 조화로우음
- 천연 석재의 색감을 활용한 작품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림
-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다양한 색과 텍스처의 대리석 조합이 흥미로우며 공간에 잘 어울림
- 공간의 구조와 공간의 점유를 최소화한 대리석 추상 작품
- 건축물과 일체화 및 통일적 색채, 다양성 표현
- 건축물과 잘 어울림
- 주변과 잘 어울리는 경쾌한 시도
- 구조적인 디자인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작품임

<부정적 의견>

- 건물의 정체성과 연관 관계를 찾기가 어려움
- 자칫 작품이라기 보다 건축물 외장마감처럼 느껴질 우려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익숙한 패턴, 아쉬운 독창성
- 작품의 규모에 비해 조명계획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예술성을 지닌 작품이라기 보다는 자칫 그래픽이 강조된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보일 수 있음

8-2. Journey of Villiv Acent

<긍정적 의견>

-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즐거움을 더하며, 작품설치 공간이 가진 차별성으로 관람객들이 이를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가 고유의 기존 작품들과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
-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상적인 작품
- 공간과의 조화
- 뛰어난 디자인적 감각
- 주변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연출된 작품
-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가 잘 반영되어 공간과의 상호작용으로 랜드마크적인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됨
- 다소 어두운 공간을 감각적인 색상과 형태의 배치로 경쾌한 공간 구성으로 연출
-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 부조 작품의 색감, 구성, 표현은 공간에 잘 어울리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많은 유동 인구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공간의 특이성과 조화로운 작품
- 판매시설 용도의 장소적 위치와 작품내용(역동성 등)의 조화성
-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 밝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조형
- 벽면공간을 잘 활용하였음
- 도시의 미감과 잘 어울림
- 입체와 평면을 오가는 조형적 흥미로움
- 자칫 픽토그램으로 보일 수 있는 도상이지만 기존 작가의 작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도상을 표현하여 흥미로움

<부정적 의견>

- 일차적인 표현으로 장식성이 강함

- 작품이 다소 설명적이며 예술적 기대 효과가 미비함
- 작품설치가 부적합해 보임
- 기존의 여러 조각의 방식과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진부해 보임
- 정보를 위한 개념-리서치형 예술인지 좀 더 명확할 필요 있음
- 예시 모델링을 그대로 옮김 혹은 디오라마 방식의 기존방식과 변별성 없음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잘어울리지 않음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 및 제작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작품이라기보다는 도시 경관 기호표지판(sign icon) 디자인 이미지로 보임
- 조명의 설치 위치 조정필요(단순 천장 설치가 아닌 작품 4면 중, 설치고려)
- 관객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 만큼 절단면의 마감을 안전하게 해야 할 것으로 고려됨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공공조각의 특성보다는 조형 요소의 표현과 형태가 인테리어의 성격이 강함

<기타 의견>

- 각각의 재료 두께 표기 누락됨(상세기재요함)

8-3. 상상의 샘

<긍정적 의견>

- 작품의 형상과 형태에서 오는 안정감이 작품 주제와 적절히 연결되며, 컴퓨터로서의 효과 또한 기대됨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잘 반영한 작품
- 작가 기존 작품들과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
- 가액이 적절해 보임
-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리며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
- 독창성 있는 작업세계
- 작가의 세계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공간에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임
- 넉넉하지 않은 공간활용을 표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조경과의 매칭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출된 조형물로 랜드마크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되어 있음
- 설치공간과 조화로우며 이용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함
- 일관된 작가의 작품세계 반영
- 설치될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려 보임
- 도심 건물-좁은 공간에서의 조화가 긍정적임
- 공개공지 위치의 적합성에 따른 작품의 이용(벤치 등) 가능
- 서정적인 주제
-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이며 사슴과 샘이 조화로움

<부정적 의견>

- 기존의 여러 조각의 방식과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진부해 보임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잘어울리지 않음
- 작품가액 대비하여 작품이 왜소해 보임
- 진부한 형식의 조형.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조형간의 관계성 모호
- 작품 뒤 조경계획으로 인해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너무 좁아 답답해보임
- 작가의 기존 작품보다 단조로움

8-4. Here comes the sun

<긍정적 의견>

- 작품이 가진 부드러움이 작품 배치 및 공간의 유도에 적절하며, 작품의 의도와 같이 특히 야간에 상징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간과의 편안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연출된 작품
- 작품과 설치공간의 조화가 무난해 보임
- 조명을 잘 활용하여 다양하게 작품을 연출
- 소통이 가능한 공공조형물로서 기능적인 아트퍼니처의 활용까지 더해져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응집소 역할이 기대됨
- 단순하지만 개념이 강한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 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 주관과 야간의 형식

고려(컬러)

- 디자인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의 작품성과 조형성에서 탁월해 보임
- 중앙광장에 휴식과 감상을 유도한 작품으로 현대인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의미로 긍정적임
- 작가 기존 작품들과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으로 절제된 조형미가 뛰어난 작품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 보이는 작품은 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임. 특히 야경에서 바라보는 작품이 인상적임
- 공개공지 위치의 적합성에 따른 작품의 이용(벤치 등) 가능
- 시간에 따른 조명 변화
- 야간 조명작동이 작품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줌
- 미니멀한 형태와 조명이 시각적으로 피로하지 않고 정갈한 이미지
- 벤치로 활용도가 있음

<부정적 의견>

- 빛 공해 소지 우려됨
- 야경시 시각적 피로감 느껴짐
- 위치가 적합해보이지 않음
- 얇아 보이는 형태가 다소 위험해 보임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에 및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야경에선 작품의 심미적 효과가 생기나 낮의 환경에선 건축물과 작품의 조화가 미비함
- 조명(폴리카보네이트)의 유지관리(교체 등)용의 고려
- 단순미가 있으나 입체 조형 작품이 방향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부분이 아쉬움
-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벤치의 사용에 대해 계절별 고려가 아쉬움(특히 여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제작 의도인 “Here comes the sun” 이라는 주제와 조형의 연관성 모호
- 단순한 형태의 반복으로 조형성 부족
-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컬러를 가진 도상으로, 그나마 야간 조명 컬러로 인해 단조로움을 보완하지만, 주간에는 단조로워 보임

8-5. Suit. Bag. Cap.

<긍정적 의견>

- 공간과 조화롭고 위치 또한 적합해 보임
- 입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잘 반영한 작품
- 본인 작품 개성을 살려 공간에 어울리게 표현함
- 작가의 주제 의식이 잘 표현되었으며 공간에 활력을 줄 것이라 판단됨
- 공간과의 조화
- 경쾌하고 독창적인 작품세계
- 세계적인 작가작품의 영입으로 공간이 더욱더 가치있는 랜드마크로 활용될 듯 함
- 단순하지만 재미와 조형성이 강조된 새로운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 안전을 우선 해야 함
- 작품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으며, 설치될 공간에 잘 어울림
- 건축물과 미술작품의 위치 및 간결한 구성이 건축물과 조화로움
- 유명작가의 작품을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공간을 잘 살렸음
-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익숙한 이미지의 작품임

<부정적 의견>

- 작품가격 과다
- 작품 규모가 작품가에 비해 작아 보임
- 매우 높은 제작 단가
- 지면에서 느껴지는 형태의 불안정한 느낌과 함께 가격 과다해 보임
- 작품 형태가 조화로워 보이지 않음
- 작가에게 지급되는 아티스트 비용이 작가 명성으로는 이해가 되나 형식적 제작 비용 책정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기초 타설 비용, 운송 등) 과다하게 책정되어 보임
- 변화있는 기획이 요구됨
- 외국작가에게 과도하게 책정된 작품비용이 적절해 보이지 않음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하여 공공미술로서는 비효율적이며 미술작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남
- 작품가가 높은 작가의 작품
- 오브제의 두께(330mm) 조정 필요

- 작품 크기 변화, 개수 변화, 두께 변화, 설치
- 방향 변화 등으로 2방향의 작품 인지성 극복 가능
- 이미 유사한 작품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기시감이 드는 것이 아쉬우나 대중이 좋아하는 유명작가의 작품을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시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작가의 기존 작품보다 역동적이거나 활발한 이미지가 훨씬 적으며, 시니컬한 느낌의 작품임
- 높은 빌딩 숲 내 활력을 주는 이미지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9-1. Yellow Memory

<긍정적 의견>

- 작품에서 오는 따뜻한 감각이 공간에 안정감을 부여해주며, 유려한 조형성이 돋보임
- 세련되고 깔끔한 구성으로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결성이 있는 작품임
- 소재와 기법이 공간에 유희성을 더함
- 독창적인 작품 표현 방식
- 공간과의 조화
- 적합해 보임
- 매우 독창적인 작가의 작품이 표현되어 공간의 높은 층고 활용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연출됨
- 세라믹을 가벼운 이미지로 구성하여 공간을 생동감 있게 채워줌
- 빛과 색채의 포슬린 조각이 주는 환경구성이 긍정적임
- 대공간(홀)과의 조화로움
- 포슬린 재료의 신선한 시도
- 현대적 구성으로 무난함
- 작가의 기존작업의 연장선으로 작가가 가진 독특한 기법을 이용해 특색있는 작품연출
- 기존 부조 작업의 확장된 버전으로 작가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임

<부정적 의견>

- 모빌이 공간과 조화롭지 못하며 도자기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전형적인 이미지로 해석된 조형성이 아쉬운 작품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잘어울리지 않음
- 기존 다른 작가 설치 작품과 유사해 보임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예산 대비 작품과 제작 비용에 및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상기 이미지는 작품의 예시로, 실제 제안작품 규모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되어있는데 작품은 정확한 규격으로 표기해야 하며 설치 시 도면과 동일해야 함
- 작가 특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나 얇은 포슬린 조각들이 부딪혔을 때 깨져 낙하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문제가 우려됨
- 전체적인 형상이 다소 단조로우며, 매다는 형식에 그친 느낌
- 오픈된 공간에 모빌로 제작하는 이 작품은 오브제 및 와이어에 먼지가 흡착되며 기존 아크릴이나 크리스탈로 제작된 작품에도 많이 보이는 현상임. 특히 무광 도자의 특성상 먼지 제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9-2. Yellow inside Yellow

<긍정적 의견>

- 단순하지만 주제 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작가의 독창성이 돋보임
- 독창적인 작품 표현 방식
- 색상이 조금은 부담스러우나 무난해 보임
- 설치 작품과 조화롭게 이어지는 건축물 전체의 균형미와 연결성이 돋보일 듯 하다.
- 변경작품은 작가의 개성이 잘 표현되고 섬세하며 공간에 조화로움
- 작가작품의 독창성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도자의 물성으로 만들어진 단색 추상의 이미지가 신선함
- 빛과 색채의 포슬린 조각이 주는 평면성이 공간과 조화로움
- 홀 상부 설치조각(Yellow Memory)과 연계(설치위치 통일 등) 가능
- 도자라는 소재로 스케일있는 평면작업을 표현하는 것이 참신하고 인상적임
- 현대적 구성으로 무난함
- 작가의 기존작업의 연장선으로 작가가 가진 독특한 기법을 이용해 특색있는 작품연출
- 색상이 아름답고 최근 많은 대중의 인기를 받는 작가의 작품임

<부정적 의견>

- 작품이 가진 표현상의 신선함이 다소 떨어짐
- 작품 크기에 비해 작품 가액 과다해 보임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잘어울리지 않음
- 가격구성과 설치 금액 사용계획서 없음
- 작품의 감상에 방해가 되는 액자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보존성 우려가 됨
- 평소 본 작품을 익숙하게 보았던바, 재료적 견고함이 건축물 미술작품으로는 취약한 면이 있음
- 포슬린 조각의 유지관리(청소 등) 대책 필요
- 사이즈가 크고, 도자 소재가 붙는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한 접합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 작품의 특성상 아크릴 케이스를 씌워도 시간이 지나면 도자 조각이 깨져 안에 떨어지는데, 케이스 없이 작품을 설치하게 되면 작품의 손상 및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굉장히 큰 작품임

10. 기억된 숲

<긍정적 의견>

- 작품이 가진 상징성이 조형에 잘 반영되었으며, 설치공간과도 잘 어우러짐
-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형태 감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개인의 작품을 조형물로 잘 제작함
- 설치공간과의 조화
- 작가의 작품성에도 연결되는 조형미가 창의적인 작품임
- 작가의 작품세계를 잘 반영하여 예술적으로 잘 보완된 작품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과 작품의 의미 부여가 적합함
- 1심 부결 사유를 잘 보완하였음
- 현대적 구성으로 무난함
- 작가의 기존 작업의 연장선으로 작가가 가진 독특한 기법을 이용해 특색있는 작품연출
- 작품 이미지 자체는 시적(詩的)이나 패널에 작품 설명과 매치가 안되어 보완이 필요함

<부정적 의견>

- 공간과 조화롭지 못하고 조형성 또한 난해해 보임
- 작품의 창의적인 요소보다는 공간을 꾸미는 형태의 진부한 작품
-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잘어울리지 않음
- 구조물을 이루는 재료, 소재형식에서,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무거운 인상, 새로운 건물과 미래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상으로 미적 교감을 주지 못함
- 건물의 입구에 랜드마크적, 경관적 측면의 구성이 부조화롭고 주제와의 연관성도 다소 부족함
- 작품의 규모가 옆으로 확장된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다채로워 보임
- 건축물과의 조화가 부족함
- 하부구조-직선형인 모듈(module)의 반복과 상부의 나무형태가 어색함
- 작가의 개인작품이 주는 서정적인 울림이 단순화됨 듯해 아쉬움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기존 작가의 작업의 재료인 실제 나무, 돌 또는 콘크리트가 스테인리스 스틸에 도장을 한 모형으로 대체되어 원 작업 특유의 감동이 없어 아쉬움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건 15개 작품 중 1, 3, 5, 6, 7, 8-1, 8-2, 8-3, 8-4, 8-5, 9-1, 9-2, 10번 작품이 승인, 2, 4번 작품은 부결됐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